

과기부 유망기업 지원 'OK'

해외 매출 큰폭 증가, 일자리 창출도 기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ICT 유망 창업·벤처기업 'K-Global 300'이 올 상반기 해외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11일 ICT분야 'K-Global 300'으로 선정된 555개(2016년 300개, 2017년 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투자유치액, 특허출원 건수 등의 경영실적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K-Global 300'기업의 재직 임직원 수는 4571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총 416명이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까지 매출액은 16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가 늘어났으며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333억원으로 전체의

2018년 상반기 K-Global 300기업 성과



20%를 차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상반기 중 873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지난해 동기 대비 51%가 증가해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특히 출원 건수도 올 상반기 중 1198건을 취득해 지난해 동기 대비 48% 증가했

다. 민원기 과기부 제 2차관은 "K-Global 300으로 선정된 기업에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친 것이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유망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시현 기자 jinsh@

KCL·KTR, 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국표원 관리감독 소홀 '부각'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공인시험기관이 제대로 시험을 하지 않고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기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플라스틱 배관계는 3종(수도관 2종, 가스관 1종)으로 KS M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PVC수도관), KS M3408-2 수

도용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관(PE수도관), KS M3514 가스용 폴리염화비닐관(PE가스관) 등이다.

이들 플라스틱 배관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3년 동안 근거자료가 되는 원시데이터(Raw Data)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거나, KOLAS(한국인정기구) 평가기준을 미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PVC수도관, PE수도관 및 PE가스관의 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문제는 지난해 10월 제기됐다.

이후 국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구성돼 1

차 검증해 일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2차에는 KOLAS 검증단이 꾸러져 보다 심도 있게 검증했다.

그 결과 PVC수도관·PE수도관·PE가스관 등 3종 플라스틱 배관은 시험측정 장비 부재, 원시데이터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표원은 3종 전체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철저한 세부조사 없이 수위를 낮춰 행정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KOLAS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야 했지만, 3개월 정지 및 개선 정도로 처분의 수위를 낮췄다.

이 의원은 "다른 어떤 곳보다 철저한 규정을 따지고 원리원칙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시험기관이 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검증 시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뿐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교 기자 kims@

송희경 의원 "통신3사 5G 투자 위해 세제혜택 필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기업의 5G 투자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G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

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이동통신 3사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G 기지국 구축에 총 7조 48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통신3사가 2G(18조5994억원), 3G(17조4552억원), 4G(20조6059억

원) 등을 개발·정착시키며 투자한 금액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5G가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LTE보다 2~3배 이상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5G에 소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통신3사의 소극적인 투자와 5G의 수익 불확실성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겹치며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진영 기자

삼성전자, 가장 다니고 싶은 기업 1위

잡플래닛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삼성전자가 올해 가장 다니고 싶은 기업에 선정됐다. 카카오와 네이버, LG전지도 다니고 싶은 기업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11일 잡플래닛이 취업준비생(이하 취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다니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응답자 17.5%가 선택한 '가장 가고 싶은 회사 한 곳'으로 선정됐다.

카카오가 13.4%로 2위를 기록했고, 한국전력이 9.7%로 뒤를 이었다. 한전은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 카카오, 한전에 이어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으로는 SK텔레콤(4위부터), 네이버,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KT&G, LG전자, CJ제일제당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그룹사 중에선 SK그룹이 유일하게 10위권 이내에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등 2개 계열사가 이름을 올렸다.

취준생들이 이들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65% 이상(복수 응답)이 '좋은 처우 조건 보장'을 꼽았다. 또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34.8%), '인지도가 높고 좋은 이미지'(31.4%)를 이유로 선택했다.

특히 취준생들은 한전의 경우 앞선 선택의 이유 외에도 '높은 안정성'(80.6%)을 꼽았고, SK텔

2018년 다니고 싶은 기업 TOP 10

순위	기업명
1	삼성전자
2	카카오
3	한국전력공사
4	SK텔레콤
5	네이버
6	현대자동차
7	SK이노베이션
8	KT&G
9	LG전자
10	CJ제일제당

레콤의 경우 '우수한 사내 문화', '워라밸'을 이유로 들었다.

'사내 성범죄나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회사는 가고 싶지 않다'는 문항에 91.07%가 그렇다고 응답하며 가치관 질문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잡플래닛이 자신의 상태를 취업생으로 설정한 활동 사용자 10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잡플래닛은 희망 기업에 한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리포트는 잡플래닛 사이트의 고객 문의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양진영 기자 camp@

1면서 계속

전선 '빅2', 중동·오세아니아 지배력 확대

시드니 지역의 노후한 지중선(地中線)을 신규 선로로 교체하는 공사 중 일부다. 대한전선은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수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오스그리드의 신뢰를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에 오스그리드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수의 글로벌 케이블 제조사와 전력기자재 및 시공업체 중 단 4개 기업만 핵심 파트너로 선정됐다"며 "대한전선은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올 상반기 뉴질랜드 전력청으로부터 약 1800만 달러 규모의 220kV급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오를랜드 인근에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가공선(架空線)을 지중화하는 프로젝트로, 터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2006년에 호주를 시작으로 오세아니아 전력 시장에 진출한 이후,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확고한 신뢰를 받아왔다"며 "메트남 생산 법인인 대한비너를 활용하는 등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오세아니아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추 국회예선 (15일)

15일(월)

· 로버트 데이비드 퍼트넘(Robert David Putnam) 초청 특별포럼 :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 교육의 희망을 꿈꾸다. (국회도서관 강당, 15:00)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사업 추진과 과학의 산업화·사업화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16일(화)

·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3:30)

17일(수)

·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10:00~11:30)

한국 산업규격 KS표시 허가업체 ISO 9001 인증업체

HIT 한국, 일본 동시 판매

실용신안 제 20-0410917호

친환경제품 (RoHS대응품) 공급 가능

후강 전선관용 나사없는 커플링

인건비 절감, 작업시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국내최초 AP 커플링

인건비 걱정 NO! 작업시간 단축 YES!

박스류, 프레스블류, 콘넥타류,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류

비방수, 방수, 콘넥타류, 방수

비방수, 방수

SUS 콘넥타 (#16~#54, 박스용, 파이프용)

노출배관용

노출배관용 현장적용사진

신제품 콘크리트 매입 배관용

조립순서: 배관 파이프 → 너트 → 고무 패킹 → AP 커플링 → 고무 패킹 → 너트

콘크리트 매입배관용 현장적용사진

나사없는 스틸 전선관 및 노말밴드 제작 판매

- 전선관에 나사를 대지 않고 조립
- 휴대용 드라이버나 스캐너등으로 간편하게 분해, 조립
- 아연 합금 제품으로 전기적 접촉성과 기계적 강도가 우수
- 미숙련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시공이 빠르고 시공품질 향상

전기배관자재 전문생산업체

대승공업(주)

www.daesng.co.kr

- 문의전화 [서울영업부] TEL : 02)742-0973
- [본사/공장]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441-3
- 제1공장 TEL : 031)863-8620
- 제2공장 TEL : 031)829-6900
- FAX : 031)836-6913